20, October, 2025 Vol. 104

| Bi-Weekly |

신영 ESG

" 경제 및 산업 구조의 전면적 전환 가속화 앞에 놓인 한국 "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ESG 탐방 노트
LG 유플러스

ESG ETF 따라잡기
Nuveen ESG Emerging Markets Equity ETF (NUEM)

ESG News Clipping

ESG essay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경제 및 산업 구조의 전면적 전환 가속화 앞에 놓인 한국

2035 NDC, 제 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을 앞두고

2035 NDC 제출 및 평가가 핵심 의제 중 하나인 UNFCCC COP30 개최가 이젠 채 한 달이 남지 않음

제 30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30) 개최가 이젠 채 한 달이 남지 않음. COP30 준비위는 COP30 정상회의(11.6.~11.7.)와 여타 협상 일정(11.10.~11.21.)을 분리하여 브라질 벨렝(Belem)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번 COP30의 주요 의제는 1) 파리협정 이행 점검 및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촉구, 2)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3) 기후 재정 확보, 4)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알려짐. 분열된 기후위기 대응의 전열에도 불구하고 UNFCCC COP30을 지나면서 EU, 일부 신흥국 중심으로 친환경은 강화될 전망임.

국내에서도 2035 NDC 확정을 위한 여러 논의가 한창 진행 중 → ICJ의 권고적 의견과 '탄소중립녹색산업기본법의 헌법불합치 판결' 등이 2035 NDC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압박으로 작용

특히, 이번 UNFCCC COP30에서는 2035 NDC 제출 및 평가, 기후 재정, 국제 탄소시장 개선,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 방안 마련 등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논의될 예정임.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035 NDC 확정을 위한 여러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음. 지난 9월 정부는 2035 NDC 목표로 2018년 대비 ▲산업계가 요구하는 48%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53%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61%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순배출량 65% 감축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제시함. 2035 NDC는 오는 11월 초까지 최종 확정되어 유엔에 제출될 예정으로 지난 7월 발표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권고적 의견'과 지난 해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산업기본법의 헌법불합치 판결' 등이 2035 NDC의 목표를 강화하는 압박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어떤 목표가 설정되더라도 현수준 대비 강화된 목표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됨.

도표 1. 11월 UNFCCC COP30 (브라질) 개최 예정

자료: COP30,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대국민 논의를 시작한 2035NDC

자료: 에너지플랫폼,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단위 백만톤

NDC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보다 강화된 제 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감

또한 지난 9월말 정부는 2035 NDC 수립을 위한 절차 진행과 동시에 NDC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 제 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감. 4기 할당대상업체는 제3차 계획기간 684개에서 12.9% 증가한 772개로 의무 참여업체(764개)와 자발적 참여업체(8개)가 지정될 예정임. 배출권 총수량은 약 25억 5,730만 톤(단위: KAU, 1KAU = 1tCO2eq)으로 이 중 배출허용총량은 약 25억 3,730만 톤으로 발표됨.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전할당량은 이 배출허용총량의 92.4%인 약 23억 4,498만 톤으로 제시함. 또한 상향된 NDC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外 예비분이었던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을 허용 총량 내로 변경한 제 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에 따라 시장조성 및 유동성 관리 용도인 총량 外 예비분은 2,000만 톤으로 발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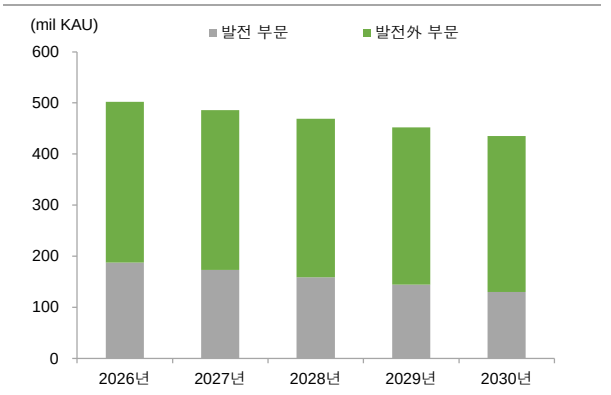
약 25억 3,730만 톤의 배출허용총량은 4기 할당대상업체의 최근 배출량, 3기 잉여량을 고려하여, 2030 NDC 달성을 유도하기 위한 선형감축경로 설정되었음. 이번 안에는 발전, 발전外 2개 부문을 구분하여 부문별 배출허용총량이 산정되었는데 이는 4기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2024년 배출량(2026년 총량)에서 2030년 목표(2030 NDC×ETS커버리지)까지 선형 감축을 고려해 정해짐. 또한 이행연도별 사전할당량 감축 경로는 기타용도 예비분,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을 종합 고려하여 선형경로에 준하여 설정됨.

도표 3. 제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의 구성(안)

	수량(KAU)	비율
배출권 총수량	2,557,295,393	-
배출허용총량	2,537,295,393	100%
사전할당량	2,344,977,255	92.4%
발전 부문	793,584,260	31.3%
발전外 부문	1,551,392,995	61.1%
기타용도 예비분	89,040,810	3.5%
발전 부문	46,948,780	1.9%
발전外 부문	42,092,030	1.7%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	103,277,328	4.1%
배출허용총량外 예비분	20,000,000	-
시장 조성 및 유동성 관리 용도 예비분	20,000,000	-

자료: 환경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이행연도별 사전할당량 감축 경로



자료: 환경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단위 백만톤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 → 발전 부문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 상향, 발전外 부문은 15%로 상향 예정

산정 단위는 사업장별로 할당량을 산정할 예정인데, 기준기간 중 사업장의 지속가동 및 신설·증설·폐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됨. 산정방법은 각 이행연도별 할당신청량 중 인정량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사업장별 할당량을 산정한 후 업체별 할당량 결정할 예정임. 이중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산업경쟁력과 감축 여건,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업종별로 차등화된 비율이 적용될 예정인데, 특히 정부는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함.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발전 부문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발전外 부문은 15%로 상향할 예정임. 또한 탄소누출 우려업종 및 특례업종은 4기까지는 무상할당을 유지하되 4차 기본계획에 따라 5기에는 유상할당 전환을 검토할 예정임. 우리나라의 2024년 온실가스배출량(잠정치) 중 전환 부문의 배출량은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음에도 전년 대비 5.4% 감소함. 이는 화석연료인 석탄 발전량은 9.6% 감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한 때문임. 이처럼 발전부문의 감축 효과가 확인된 만큼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으로 추정됨.

도표 5.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

구분	3기 ('21~'25)	4기					
			2026	2027	2028	2029	2030
탄소누출 非우려업종	10%*	발전	15%	20%	30%	40%	50%
		발전 外	15%	15%	15%	15%	15%
탄소누출 우려업종	0%		0%	0%	0%	0%	0%

자료: 환경부, 탄소중립검증센터,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한정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난 달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심지어 언론에 따르면 2030년에는 현재보다 5배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이에 따라 탄소감축 및 탄소배출권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 지난해 이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월평균 거래가격이 만원 이하에서 거래되었던 국내 탄소배출권(KAU 25) 가격이 지난 달 이후 상승해 만원 대를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심지어 최근 언론에 따르면 일부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는 정부의 유상할당 확대와 배출허용총량 축소,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내 탄소배출권(KAU) 가격이 내년에 톤당 2만 8000원 대로 급등하고, 2030년에는 5만 3000원 대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함.

2035 NDC 수립, 제 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등과 같은 정책은 향후 국내 경제 및 산업 구조의 전면적 전환 가속화를 가져올 것

이처럼 2035 NDC 수립, 제 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등은 연내 확정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경제 및 산업 구조의 전면적 전환 가속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먼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전환 및 산업계 부담이 증가할 것임.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력망 투자 비용, 강화되는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전기요금 및 에너지 요금 상승 압박이 커지는 등 에너지 요금 및 생활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 수송 및 건물의 화석 연료 퇴출 정책 등이 예상됨. 한편 새로운 시장이 창출됨에 따라 무탄소/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가속화가 빠르고 전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따르는 위험은 낮추고 기회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잘 대응해야 할 것임.

ESG 이벤트 & 신영's View

美EV 충전산업, 세제혜택 종료로 M&A 재편 가속…최대 충전사 EVgo도 인수 카드 만지작

- 영세 사업자 비중이 높은 미 충전 업계 특성 상, 자금력과 신뢰를 갖춘 기업이 M&A를 통해 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됨
- 유럽, M&A 따른 시장 재편이 활성화 되어있으며 미국 또한 유사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전망됨

Comments

- 미국 IRA EV 세제혜택 종료(9/30)에 따라 미국 EV 시장 성장 둔화 불가피
- 이에 미국 EV 충전 사업도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서는 M&A를 통한 외형 성장이 필요
- 소규모 영세 EV 충전 사업자는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

–Analyst 문용권

싱가포르 IT기업 메가스피드, '엔비디아 칩 우회수출' 의혹 …美 반도체 수사에 사실상 폐쇄

- 싱가포르 IT 기업인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 칩 우회 수출 의혹을 받고 있음
- 엔비디아의 싱가포르 우회 수출 의혹은 23년부터 제기됐음
- 미국, 수출통제와 기술 추적을 결합한 신규 관리 체계 도입 논의 중

Comments

- 엔비디아의 FY1Q24 싱가포르 매출 비중은 11%에서 FY2Q26 22%로 상승했음
- 반면, 싱가포르와 중국의 매출 비중 합계는 약 3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이는 엔비디아 칩이 싱가포르를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됨
- 美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해 향후 싱가폴 매출 비중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Analyst 박상욱

캘리포니아, 글로벌 기업 4000곳 기후공시 의무화…대상 명단 공개"

-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는 내년 기후공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4160개 대상 기업 명단을 공개 → 이중 2,596개 기업은 공시 SB 253(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과 SB 261(기후 관련 금융위험 공시법)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나머지 1,564개 기업은 SB 261만 적용 대상임
- 캘리포니아주 공시, SEC의 기후 공시 규제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美 전국 표준 작용 가능성 높아…기업·투자자에 새 리스크와 기회

Comments

- SB 253은 연 매출 10억달러 이상의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스코프 1·2뿐 아니라 스코프 3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스코프 1·2 보고는 2026년부터, 스코프 3 보고는 2027년부터 시작됨
- SB 261은 연 매출 5억달러 이상 기업에게 기후 관련 재무위험과 대응 전략 보고를 요구. 첫 보고서는 2026년 1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후 격년마다 보고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스코, CJ제일제당, 대한항공 등을 포함해 다수의 국내 기업(미국 법인)이 포함되어 있어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임

–Analyst 오광영

ESG 탐방노트

통신 담당 정원석 T.02)2004-9092 / jeong.won-seok1@shinyoung.com

LG유플러스(032640.KS)

매수(TP 17,000원)

선제적 보안 투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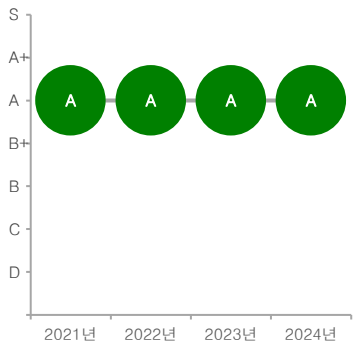
현재주가(10/17) 14,900원

ESG 등급 현황

(평가기관)	ESG	E	S	G
KCGS	A	A	A+	A
Bloomberg	64.70	41.20	81.40	45.60

주: KCGS :S~D 7등급
Bloomberg: 100 만점 기준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5. 10. 17)

시가총액(억원)	64,087
배당수익률(25,%)	4.4
외국인지분율(%)	41.0
주요주주 지분율(%)	
LG외 외 3 인	38.3 %
국민연금공단	7.4 %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1	2.8	35.8	53.6
KOSPI대비 상대수익률	-5.5	-14.9	-17.4	10.0

Environment

구 분	단위	2023	2024
온실가스 배출량	천 tCO2eq	7,787	6,974
폐기물 발생량	톤	7,464	7,163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	-
환경경영 인증	ISO 14001		
환경경영 조직	ESG 위원회		

Social

구 분	단위	2023	2024
LTIFR	%	0.2	0.2
기간제 근로자 비율	%	2.0	1.7
여성 근로자 비율	%	23.5	20.4
사회 공헌지출	억원	-	-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중		

Governance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1 주 전 소집공고
전자투표제	실시
집중투표제	미실시
배당 실시 배당기준일	분기배당 (2 회) 이사회 결의
이사회 운영 실적	8 회, 사외이사 참석률 96.4%

ESG 관련 최신 활동

LG유플러스, ESG 경영 '공시'로 선도하고 '상생'으로 이어간다

(이로운넷, 24.08.05)

- 통신업계 최초로 기후위기가 재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함
- LG유플러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 기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 2050년 까지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LG U+, CDP 평가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고 등급 획득

(연합뉴스, 25.03.31)

-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의 2024년 기후변화 대응 부문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함
- 당사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대전 R&D 센터에 1,000kw 자가 태양고아 발전성비를 가동 중

LG유플러스, CDP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수상

(IT조선, 25.04.30)

- 2024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코리아 어워즈에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선정됨
- 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유일하게 선정됨
- LG유플러스는 해당 부무에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 연속 선정됨

ESG history

연 혁	내 용
2021년	[G]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2022년	[E] 친환경 네트워크 장비로 전환 작업
2023년	[E] 품질 환경 다 잡은 ESG IDC '평촌2센터' 준공
	[E] 'ESG 기지국' 실증 냉방전력 72% 절약
2024년	[E] 공용 유심 원칩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절반으로 줄인다
	[E] 1천KW급 자가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2025년	[S]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재난현장 어린이 위한 '이동형 놀이터' 개발
	[S] 소방청과 'AI 목소리' 복원 프로젝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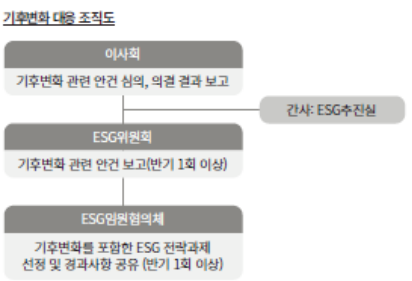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

LG유플러스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실현 가능성·사업 영향·경제성을 종합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포함한 핵심 지속가능성 이슈를 정례 심의·의결하며, 이에 기반한 개선 과제를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거버넌스를 갖추었다.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혁신 과제를 실행 중이며, 세부과제로 2022년 대비 2033년까지 Scope 1·2 배출을 54.6% 감축하는 중기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보 보안 역량 다각도로 강화 중

LG유플러스는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역량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 전사 보안 규정·지침 개정, 투자·인력 확대를 통해 거버넌스와 실행 기반을 고도화했다. 이에 따라 전사 정보보호 대상 자산을 식별하고 취약점 점검 범위를 전수 수준으로 확대해 보안 가이드를 정비했으며, 정보자산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검출·클렌징하여 보안 기본기를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보안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보안관제 연동 대상을 확대하고 식별된 영역의 상시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사고 예방 역량을 높였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이상 징후 탐지·대응 범위를 전사로 넓혀 보안 사각지대를 제거했으며, 대외 위협에 대한 실시간 연계분석이 가능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로 업그레이드했다.

LG유플러스 기후변화 대응 조직도



자료: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정보보안 중장기 목표

자료: LG유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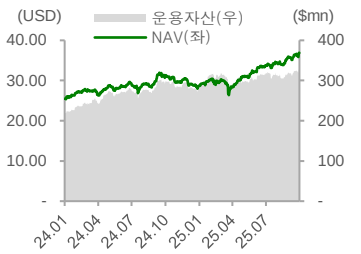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Nuveen ESG Emerging Markets Equity ETF (NUEM)

Key Facts	
상장일	2017/06/06
기초지수	The Nuveen ESG Emerging Markets Equity Index (MSCI)
구성종목수	194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325.2
시장가격(USD)	36.50
NAV(USD)	36.54
총보수(%)	0.36
운용사	Nuveen

Top Holdings (기준일: 2025.10.15)	
TAIWAN SEMICONDUCTOR MANU	13.57%
DELTA ELECTRONICS INC	2.42%
HDFC BANK LTD	2.07%
CHINA CONSTRUCTION BANK	2.06%
NETEASE INC	1.84%
BYD CO LTD	1.66%
SK SQUARE CO LTD	1.63%
PING AN INSURANCE GROUP CO	1.61%
MAHINDRA & MAHINDRA LTD	1.60%
NAVER CORP	1.59%

NAV와 운용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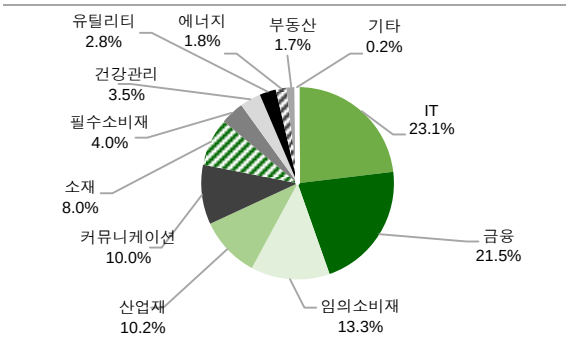
ETF 개요

Nuveen ESG Emerging Markets Equity ETF(NUEM)는 2017년 6월 상장된 ETF로, 이머징 국가의 다양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원칙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The Nuveen ESG Emerging Markets Equity Index를 추종하는 ETF임. 기초 지수는 MSCI Emerging Index 를 기본 유니버스로 시작하여 일련의 ESG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구성됨. 먼저 기본 유니버스를 대상으로 ESG 적격 여부를 점검하는데 주요 기준은 국제법 준수, 직원과의 관계 등 ESG의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함. 또한 주류, 담배, 도박, 무기 등 논란이 많은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됨. 이후 각 ESG 요소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각 부문 내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업(시가총액 기준 상위 50%)으로 최종 구성함. 이후 탄소 배출량을 점검하여 기본 지수보다 탄소 발자국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후 섹터 가중치, 국가 가중치 관리를 통해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함. 분기별로 리밸런싱됨.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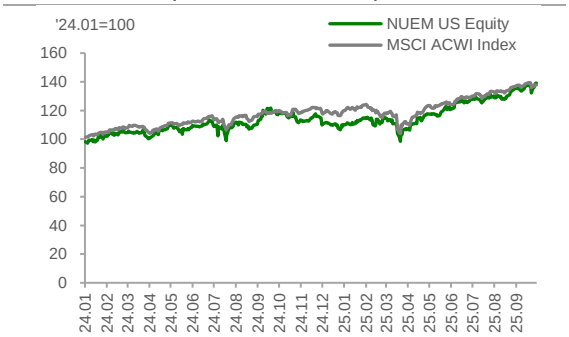
NUEM는 규칙 기반 방법론을 사용하여 이머징 국가에 소재하며 사전에 정해진 ESG,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 참여 및 저탄소 선별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다각화된 ETF로 지역적으로는 중국(27.2%), 대만(22.2%), 인도(15.4%), 한국(10.8%)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SG 논란이 없고 지속가능성이 우수한 신흥국 시장의 기업에 대한 노출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음.

NUEM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1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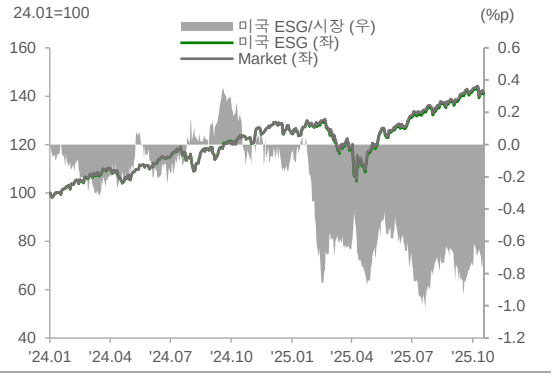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1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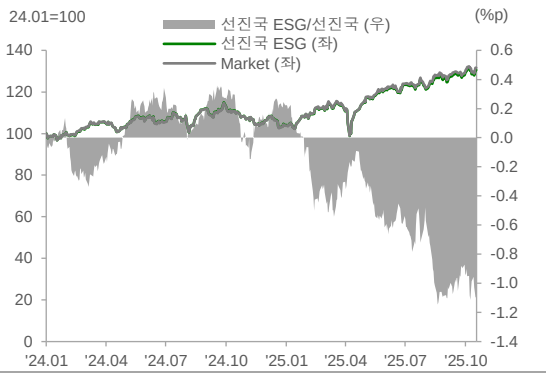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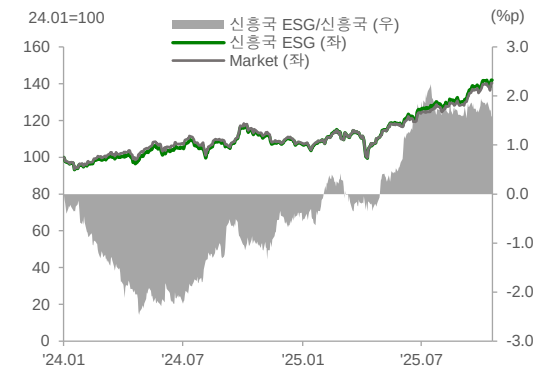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17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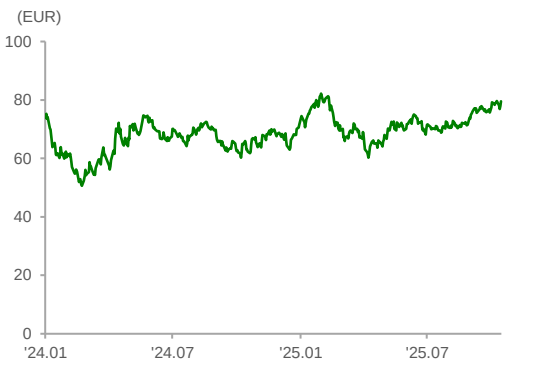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09.26 기준)

신흥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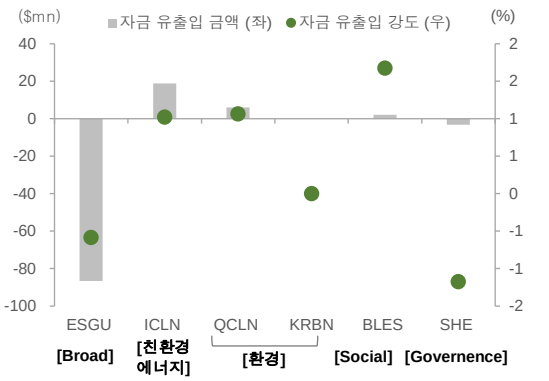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17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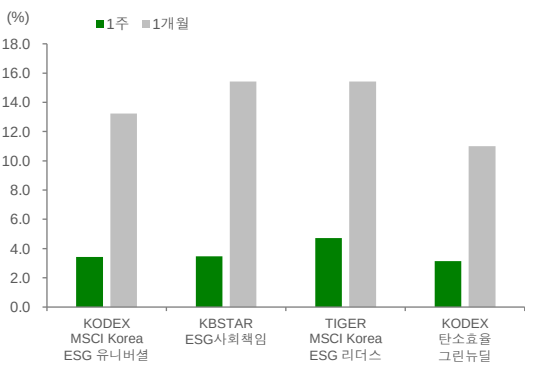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17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17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17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81,433	60	79.5%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8,901	13	8.7%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202	13	6.1%	13.4%
4	Social	5,459	5	5.3%	5.2%
5	Governance	394	3	0.4%	3.1%
6	기타	39	3	0.0%	3.1%
ESG 전체		**100,814**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17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5 YTD	1개월	2025 YTD
Broad	ESGU	14,771	1.75	1.19	6.09	26.72	-87	-79	-0.6	-0.5
	ESGV	11,444	1.20	-0.12	5.47	27.34	-6	164	-0.1	1.4
	SUSL	929	1.58	1.91	5.81	28.35	6	-171	0.6	-18.4
	NULV	1,811	0.95	0.46	2.76	13.64	2	22	0.1	1.2
	NUSC	1,221	2.23	0.51	5.19	22.72	27	-54	2.2	-4.5
	ESGE	5,514	3.11	1.32	9.42	30.36	0	-77	0.0	-1.4
	ESGD	10,264	1.88	0.81	5.47	14.83	121	387	1.2	3.8
	EAGG	4,268	0.22	0.14	2.78	2.83	72	479	1.7	11.2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1,841	6.29	11.57	25.20	46.19	19	-168	1.0	-9.1
	TAN	907	5.94	11.65	26.17	69.40	60	-146	6.7	-16.1
Environment	QCLN	568	11.95	17.25	32.09	80.95	6	-130	1.1	-23.0
	SPYX	2,372	1.19	0.37	5.53	26.04	-5	44	-0.2	1.9
	CRBN	1,034	1.97	1.06	6.34	23.84	-90	-96	-8.7	-9.3
	KRBN	172	0.89	3.06	13.21	22.77	0	-51	0.0	-29.6
Social	BLES	125	1.60	0.21	3.53	16.43	2	6	1.7	4.5
Governance	SHE	275	1.33	1.25	2.29	18.20	-3	0	-1.2	0.0
	JCTR	7	0.00	1.35	6.17	26.10	0	-2	0.0	-28.1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17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5 YTD	1개월	2025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108	3.42	13.24	22.16	58.71	0.0	-20.8	0.0	-19.3
FOCUS ESG 리더스	131	2.27	1.64	4.27	36.14	0.0	50.0	0.0	38.1
KODEX 200ESG	481	3.54	13.94	24.16	60.27	0.0	-65.1	0.0	-13.5
KBStar ESG 사회책임	842	3.47	15.43	25.62	66.96	-82.7	-1,846.8	-9.8	-219.3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102	3.40	13.03	21.60	59.92	0.0	3.8	0.0	3.7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114	4.72	15.42	24.21	72.28	3.7	-39.2	3.3	-34.4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306	3.15	11.00	19.69	53.00	0.0	-17.2	0.0	-5.6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126	3.14	10.87	19.18	53.70	0.0	-10.5	0.0	-8.3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113	3.17	10.97	19.30	53.48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17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 (환경)

(2025.09.29) CATL, 배터리·ESS 성장 힘입어 中 시총 3위 등극 - Impact-on

ESS 분야 진출 · 정부의 ESS 지원정책으로 주가 30% 상승
글로벌 투자자, "CATL 성장 잠재력 커"...평가 상향 조정

(2025.09.30) 美 메릴랜드서 첫 주거용 차량-그리드 실증…EV 배터리, 전력망 자원으로 - Impact-on

포드 전기픽업, 美 최초 분산형 전력망 시범사업 참여
62TWh 잠재력 품은 차량-그리드…EV·전력사 투자 경쟁 본격화

(2025.09.30) 패션 산업, 탈탄소화 점수 '0'…90개 브랜드 공급망 전기화 외면 - Impact-on

공급망 에너지 전환 '정체'…전기화·재생에너지 도입 전무
'공정한 전환' 외면…비용은 하청에 전가

(2025.10.02) 美 코닝-퀀텀스케이프, 대량 생산 가능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 Impact-on

세라믹 분리막 기술과 대량 생산 결합해 배터리 성능 · 안정성 강화
저비용 차세대 EV 배터리 소재 공동 개발…주가 12% 급등해

(2025.09.29) MS·유니레버, 기후적응 전략으로 새 성장 동력 확보 - Impact-on

마이크로소프트, 기후재난에도 멈추지 않는 클라우드
유니레버, 재생 농업으로 공급망 안정성과 브랜드 차별화

(2025.09.29) 美 전력사, 기후공약 후퇴 확산...65곳 중 절반, 낙제점 - Impact-on

美 전력사, 기후 목표 축소·삭제…탈석탄·청정발전 확대 지연
美산업계, 스코프 2 배출 감축에 빨간불

(2025.10.14) 트럼프 화석연료 정책이 세계 에너지 전환에 미칠 영향은? - ESG경제

미국 외 중국 등의 정책도 영향 미칠 중요 변수
재생에너지 3배 확충 목표 달성 차질 전망 우세
향후 5년 재생에너지 2배 증가...영향 미미 전망도

S (사회)

(2025.10.01) 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10여곳 형사 고소...'무관용' 초강수 - ESG경제

쿠팡 브랜드 가치훼손 피해 심각...'업무방해죄' 고소
쿠팡, 부정광고 파트너사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부정광고 근절 필요시 더 강력한 제재조치 추가할 것"

G (지배구조)

(2025.10.13) 中쉬인, 3100억 유럽 벌금에 내부통제 강화…리스크 관리 전면 개편 - Impact-on

'경영 무결성 그룹'(Business Integrity Group) 신설…감사·컴플라이언스 통합 운영
미국 둔화에 유럽 중심으로 전략 전환…정치·규제 리스크 대응 본격화

(2025.10.15) 폭스바겐 이어 포드·르노 등 5개사 피소…英사법사상 최대 집단소송 - Impact-on

원고 측, "제조사 고의로 불법 행위 저질러"
제조사 "기술적 조정일 뿐 불법 아냐" 전면 반박
"시험 땐 감추고, 주행 땐 방출"… 최대 11조원 배상 가능성

(2025.09.30) 중간배당 기업 26% 늘었지만 여전히 5%만 실시중..."개선 여지 커" - ESG경제

리더스인덱스 분석…올해 상반기 총 12.7조원, 1.8조원 늘어
중간배당 기업 전년대비 26% 증가...삼성전자 4.9조원 배당
하나금융 46.5%↑ 5003억 배당...상위 10개사중 증가율 최고
홍라희 명예관장 719억 1위...이재용 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2~3위

정책 ESG 뉴스

ESG

(2025.10.14) 호주 퀸즐랜드, 탈석탄 철회…연방 기후 목표에 먹구름 - Impact-on

퀸즐랜드, 석탄발전 폐쇄 계획 공식 철회
호주 연방정부의 감축 목표와 충돌…청정에너지 투자 신호 '혼선'

(2025.09.30) EU, 중소기업 ESG공시 부담 줄인다…저비용 디지털 도구 확산 - Impact-on

유럽, 중소기업 맞춤형 저비용 ESG 공시 지원도구 확산
공시 자동화·연동·검증 강화…언어 장벽은 여전

(2025.10.13) 세계은행 이사국 절반 이상…"연간 자금 45% 기후사업에 투입해야" 공동성명 발표 - Impact-on

미국 등 6개국 불참…기후정책 두고 회원국 의견 차이
세계은행 이사진 "에너지전환·자연보전, 모든 사업의 중심이 돼야"

(2025.10.13) ISO, 기업 생물다양성 관리 표준 공개 - Impact-on

ISO 생물다양성 표준 핵심, 평가부터 거버넌스까지 '실행 지침'
ISO 17298, TNFD·ISSB와 연계…자연자본 리스크 관리 표준화 가속

E (환경)

(2025.09.29) 영국, 시멘트·폐기물 발전소에 CCUS 적용...18조원 투자 - Impact-on

18조원 투입해 시멘트·폐기물 산업에 CCUS 적용
英, CCUS 프로젝트 본격화…산업 성장 전략 가속

(2025.09.29) 월가, 기후금융 대신 에너지 안보·AI 성장 논리로 선회 - Impact-on

트럼프 '공정금융' 행정명령…결국은 화석연료 자금 보호
도덕에서 재무로…기후 리스크·재생에너지 고려 확대

(2025.09.29) 정부, 산업 부문 2035 NDC 30%안 검토…산업계 "현실적 한계" 호소 - Impact-on

정부, 2035 산업 부문 최대 30% 감축…인내 자본 투입 필요
철강·화학·시멘트 한목소리 "기술·투자 한계"…정부 지원 확대 촉구

(2025.10.02)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폐기물 발전소 10월 가동…33개 도시로 확대 - Impact-on

인니 폐기물의 61%가 방치, 27억달러로 폐기물 발전소 건설
폐기물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국부펀드 직접 참여

(2025.09.30) 美·中 관세전쟁, 브라질 대두 수요 폭증…항만·도로 확충 속 아마존 훼손 논란 - Impact-on

아마존 대두 모라토리엄 흔들…카르텔 조사 시작
물류망 확충, 득인가 독인가…벌목·토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2025.10.10) ICVCM, 기술 기반 탄소 제거 방법론 승인…자발적 탄소시장 전환점 맞나 - Impact-on

아이소메트릭의 기술 기반 탄소크레딧 기준, 국제적 인정 받아
글로벌 기업·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술 기반 CDR 사업 본격화

(2025.10.10) EU 의회, 지속가능성 규제 완화 합의…토탈에너지스·지멘스, 실사법 폐지 공동서한 - Impact-on

EU 의회, CSDDD·CSRD…대폭 완화 합의
토탈에너지스·지멘스, "CSDDD 완전 폐지해야" 공동서한 발송

(2025.10.14) 트럼프 화석연료 정책이 세계 에너지 전환에 미칠 영향은? - ESG경제

미국 외 중국 등의 정책도 영향 미칠 중요 변수
재생에너지 3배 확충 목표 달성 차질 전망 우세
향후 5년 재생에너지 2배 증가...영향 미미 전망도

일반 ESG 뉴스

ESG

(2025.10.01) PwC, 글로벌 기업 66% 공시 투자 확대…AI 활용 1년 새 3배 급증 - Impact-on

규제 완화에도 '보고 압력 완화' 응답 7%에 그쳐
지속가능성 보고 AI 활용 비율, 지난해 11% → 올해 28%

E (환경)

(2025.09.30) 중고 전기차, 신차 둔화 속 폭풍 성장…美 EV 보급 확산의 게임체인저 - Impact-on

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품질·내구성에 대한 신뢰 확산
신차 구매자들이 중고로 팔 수 있을지 걱정 않아도 될 때 올 것

(2025.09.29) 스코프3 방치, 2030년 기업에 연 5000억달러 폭탄…BCG 경고 - Impact-on

스코프3 관리 부재, 2030년 매년 5000억달러 부담
공급망 감축 투자, 최대 6배 수익 기회

(2025.09.29) EU 규제·순환경제 대응, 해법은 에코디자인 - Impact-on

순환성은 설계에서 시작…기업들 한목소리
제조업 현장, 순환경제 성패는 정책 예측성과 민관 협력에 달려

(2025.10.02) 탄소시장 '조용한 부활'…탄소크레딧 프로젝트 상반기 14조원 투자 - Impact-on

자발적 시장에서 규제 기반 시장으로 전환 중
크레딧 품질 개선 조짐 속 여전한 신뢰 과제

(2025.10.13)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내년 2만원, 5년 뒤 5만원 돌파 전망" - ESG경제

나무이앤알 전망 보고서…정부 정책과 EU 기조가 견인
내년 본격 상승 기류 접어들어…"170% 이상 오를 전망"
"유럽 변화 국내 배출권 가격에 영향, 시장 관리 서둘러야"

(2025.10.14) 청정에너지 지수, 6개월간 50% 급등…S&P 500·금값보다 더 올라 - ESG경제

S&P 청정에너지지수, 4월 저점대비 가파른 성장…원유지수보다 성과 좋아
"재생에너지없이 AI 전력 공급 불가능하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진 결과"
IEA, "107개국 재생에너지 확대로 화석연료 수입 줄여 수천억 달러 절약"

(2025.10.02) SBTi, ESG 전문가 키운다…글로벌 아카데미·인증 제도 첫선 - Impact-on

녹색 인력 부족이 설립 배경…3단계 교육 과정 도입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검증 제도

(2025.10.14) 맥킨지, 에너지 전환 '속도 둔화'…"2050년에도 화석연료 비중 40% 이상" - Impact-on

지구온난화 1.5도 목표 초과 예상
화석연료, 2050년 이후 에너지 믹스 40% 넘을 수도
맥킨지, "넷제로 향한 '단일 경로' 존재하지 않아"

G (지배구조)

(2025.10.13) 기업거버넌스포럼, "배임죄 없애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 ESG경제

배임죄 폐지 추진에 자본시장 투자 전문가들 반발
소수주주 권익 훼손·경영자 사익추구 조장 우려 제기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종목
-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 **중 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20250930)	매수 : 87.41%	중립 : 11.89%	매도 : 0.7%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LG유플러스	-	-	-	-	-	-	-	-

2025-10-20

LG유플러스 :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평균주가	최고(저) 주가
2025-10-20	매수	17000		
2025-07-10	매수	17000		
2025-05-09	매수	15000	-10.72	-1.40
2024-11-21	매수	13000	-16.88	-3.92